

8주차 | 학습목차



학습목차	01.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	04.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학습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 •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 • 피해자들의 노력과 활동모습
학습내용	02. 진도의 혼란 상황	05.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사 직후의 진도,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 •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가족의 특별법 촉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• 세월호 참사의 피해 현황
	03. 유가족의 슬픔	06.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 • 자녀 수습 과정의 슬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•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

8주차 |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



4차시

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8주차 | 학습목표

4차시.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학습목차	
학습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알 수 있다. ■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.
학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 ■ 피해자들의 노력과 활동모습

8주차 |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



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-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활동
 - 2014년 6월 6일 희생자 260명 시신 수습
 - 서명활동 시작, 전국적 확대
 - 가족대책위원회 구성, 6월 7일 서명 운동 시작
 - 7월 2일 전국 버스 순회 시작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“마음은 막, 막 [소리를 내지만] 처음에는 진짜 안 나왔어요. 안 나와서 내 옆에 있는 부모님 한 마디하면 내 한 마디하고, 옆에 있는 부모님 한 마디 하면, 한 마디하고 안 그러면 같이 외치고 해달라고. 왜 해야 되는지 해달라고. 사실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나오지가 않았어요, 말이.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해요. (웃음) ... 2인 1조로 다니고 서명지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못 하니가 같이 받고 그러고 그랬죠. 서명지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데, 들고 다니며 가지고 다니며 해달라고 할 때는 아우, 참 말 띄우기가 너무 힘들었지.”

[출처02] 『그날을 말한다 - 세월호 열마 배미션』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- 시민과 유가족들의 대면
 - 세월호의 사회적 문제, 감정의 공유



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

[출처01]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“그 당시 반응은 대부분 우셨어요. 저희도 “서명 부탁드립니다” 라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. 처음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. 근데 우시는 분이든지 뭐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. 그런 분들 때문에 점점 더 힘을 얻어갔던 거 같아요. 그러면서 뭐 박카스라든지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사서 놓고 가시는 분들,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더 크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애.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서명을 받았던 거 같애요.”

[출처03] 『그날을 말한다 - 경주 열마 유병화』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“너무 고생하신다 힘내시라 그러면서 음료수도 챙겨다 주시고, 제일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수원의 그 어디 대학교였지 그 쪽으로 서명을 갔는데 한 네다섯 살 된 꼬마 여자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주는 거예요, 음료수를. “드시고 힘내세요” 이려고 가는데 거기 저희 부모들이 그때도 너무 울었어요.”

[출처04]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엄마 배미선』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“서명 받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니네 자식들은 수학여행 가서 그런 거 아니냐, 가만히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설치느냐, 진짜 그런 이야기. 내 자식은 아니고 내 아는 사람의 자식도 거기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야, 진짜 왜 설치냐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얼마를 받고 싶어서 자식 팔아 얼마 받고 싶어서 그러느냐. 저도 그랬지만 아, 그 소리를 들으면 아우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 쓰러져서 울고 음, 그랬었어요.”

[출처06]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엄마 배미선』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

“처음에는 “서명 받습니다. 세월호 참사, 세월호 유가족입니다” 이렇게 얘기하는데 “세월호 유가족입니다” 요 자만 나와도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야. 이게 숨이 탁 막히면서, 너무 여기[가슴이]가 어안이 없다, 모라 그래야 되지. 어이가 없고,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겹치니까 여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. ‘내가 왜?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지?’ 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죠, 그 순간.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이런 생각. 그러면서 오셔서 같이 이제 손잡아 주시고 이러면서 힘이 나는 거죠. ‘아,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’, 이게.”

[출처05] 『그날을 말하다 - 경주 엄마 유영화』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국회와 청와대 앞 농성

- 가족대책위원회의 활동
 -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및 농성
 - 국회와 광화문 단식
 - 350만명 서명지 국회전달



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릴레이 단식

[출처07]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국회와 청와대 앞 농성

“부모님들이 국회 있으면 처음에는 많이 잤는데 나중에는 졸었어요. 낮보다 밤이 무섭다. 낮에는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좀 덜한데 밤에는 여자하면 들어내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밤에 더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다. 부모님들이 그랬어요, 밤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낼까봐.”



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

[출처08] 「그날을 말하다 - 세월의 끝마 배미션」 [출처09] 4.16 기억저장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국회와 청와대 앞 농성

“그 안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. 몸싸움해가면서 유가족이 아닌 척 하면서. 거기에 CCTV가 있는데 도로 상황을 보기 위한 CCTV인데 어느 상황인가 그 CCTV가 우리 유가족을 보고 있더라고요. 참 우리 가족들이 범죄 집단도 아니고 왜 우리를 감시를 해야 되나.(한숨) 그런 생각도 들었고. 거기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국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청운동에 있을 때도 부모님들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.”

[출처10] 「그날을 말하다 - 세월의 끝마 배미션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국회와 청와대 앞 농성

저희들은 안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경찰들이 따라붙고 감시가 시작되기 땀에, 안 봐도 유가족인지 그때는 다 알아 알아본 듯 봤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어딜 가면 못 들어가니까 가방에 리본이며 막 이런 배지며 이런 것들을 넣고 아닌 척하고 지나가고 그랬었어요. (울음)”

[출처10] 「그날을 말하다 - 세월의 끝마 배미션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국회와 청와대 앞 농성

- 그 이후의 이야기
 -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특별법 합의, 특별조사위원회 설치
 - 11월 5일 유가족 농성 해제(76일)
 - 11월 11일 세월호 수중 수색 종료



청와대 앞 농성 해제 등을 알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

[출처11] 4.16 기억저장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국회와 청와대 앞 농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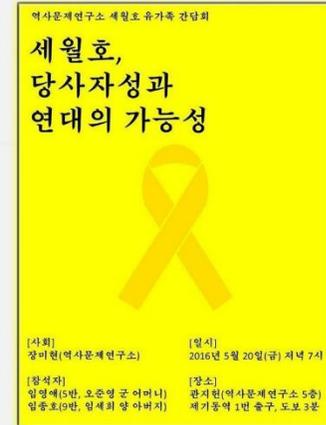
-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추진
 - 2015년 정부 주도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 추진
 - 해양수산부를 제정 주체로 하며,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조사 범위 축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- 가족과 시민의 만남 확대



[출처12] 역사문제연구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“저는 많이 못 갔어요. 가셔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많이 못 하고, 거의 가면 세희 아빠가 말을 많이 했어요. 하다보면 막 저는 울기부터 하니까 애길 하다보면 눈물부터 나고 그래버리니까.”

[출처13] 「그날을 말하다 - 세희 엄마 배미선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“예전에는 대안학교가요, 말 그대로 학교에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. 진짜 그랬어요.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. 그게 아니구요,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아이들 학교생활이 바뀌어가면서요, 말 그대로 문제 아이가 아닌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잖아요. 그렇죠, 정상적으로. 나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, 말 그대로.”

[출처14] 「그날을 말하다 - 승묵 엄마 은인숙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정상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제가 힘든 마음을 제가 그걸 가졌잖아요.
 몇 개월 동안에.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가는 학교거든요, 말 그대로.
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
 자기들끼리 또 밝은 표정 이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
 그렇게 너무 좋아 갖구서는 우리 승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”

[출처14] 「그날을 말하다 - 승묵 엄마 은인숙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- 가족과 시민의 만남 확대:
 2015년 1월 19일~2월 14일, 19박 20일 간 도보 행진
 “나는 제일 겁났던 게 내가 중도 포기할까봐.
 그게 좀 두렵더라고. 왜냐하면 포기한다는 자체가
 안 좋잖아요.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일을 시작하는
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.



도보 행진하는 유가족과 시민

[출처15] 「그날을 말하다 - 재강 엄마 양옥자」 [출처16] 4.16 기억저장소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... 19박 20일 걸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.
 ... 근데 못 걸으면 차를 좀 타도 됐는데, 제가 두 번인가 탔어. 결국은 안 돼갖고.
 이게 막 걸을 수가 없어.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.
 근데 우리 엄마들이 전부 다 의외로 차 안 타려고 해요. 웬만하면 그냥.”

[출처15] 「그날을 말하다 - 재강 엄마 양옥자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“내가 내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범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라는
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내가 지은 죄라면 어른
 으로서 또 아빠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게 가장
 큰 죄일 거고 그 죄값이라면 다르게 받아야 되니까 하
 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
 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.



평목항으로 향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행진

[출처17] 민중의 소리 [출처18] 「그날을 말하다 - 세희 아빠 임중호」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간담회와 도보 행진

나도 아프고 지치고 힘든데 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
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면 또 해야지 되고 내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
해서는 또 이거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.
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내 자식의 억울함을 왜 이런 방법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가.
또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데 왜 인양을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걸어
야 되나.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.”

[출처18]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아버 임종호』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다음시간에는

- 진상 규명 촉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

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| 4차시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



마무리

-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활동

SOURCES

- [출처01]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
<https://archive.much.go.kr/data/03/mapFolderList.do>
- [출처02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엄마 배미선』, 한울, 2019, 117쪽
- [출처03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경주 엄마 유병화』, 한울, 2019, 148쪽
- [출처04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엄마 배미선』, 한울, 2019, 112쪽
- [출처05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경주 엄마 유병화』, 한울, 2019, 226쪽
- [출처06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엄마 배미선』, 한울, 2019, 111~112쪽
- [출처07]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아카이브
<https://archive.much.go.kr/search.do>
- [출처08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월호 엄마 배미선』, 한울, 2019, 133~134쪽
- [출처09] 4.16 기억저장소

SOURCES



- [출처10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희 엄마 배미선』, 한울, 2019, 114쪽
- [출처11] 4.16 기억저장소
- [출처12] 역사문제연구소
http://www.kistory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story1&wr_id=161&subPage=510&page=14&sca=
- [출처13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희 엄마 배미선』, 한울, 2019, 153쪽
- [출처14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승목 엄마 은인숙』, 한울, 2019, 192~193쪽
- [출처15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재강 엄마 양옥자』, 한울, 2019, 114~115쪽
- [출처16] 4.16 기억저장소
- [출처17] 민중의 소리
<https://vop.co.kr/A00000849480.html>
- [출처18] 4-16기억저장소 기획, 『그날을 말하다 - 세희 아빠 임종호』, 한울, 2019, 211~212쪽



기획·조정
이봉규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